

추도사

가야산 노송은 세월이 더해 가는데도, 빛과 향은 더 푸르고 더 진하여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후학 제자들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덕화 앞에 예경을 올리며, 선명한 정진의 향기를 널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님의 참모습을 마음 깊이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어 생각하는 것으로, 후학에 대한 깊은 애정이 선대의 공경에 바탕을 두고 있으셨음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스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모시고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은 모두에게 확고한 지남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쇠와 강석에 새겨진 천년의 지혜를 꺼내어 늘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설해주셨던 그대로, 오늘 당신의 마음과 미소를 행장으로써 가야산에 굳게 새기고, 다시 천년의 후손에게 고스란히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스님의 공덕이 원만하게 모셔지니, 불자들이 참정신을 올곧게 이어나가는 또 하나의 넓은 반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금의 삶이 어제와 내일을 이어가는 정진의 연속이라 가르치셨으니, 불은(佛恩)과 선대에 보답하는 길로 삼아 쉽없이 정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원력과 헌신은 오랜 시간 시대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어지러운 중생의 욕심을 씻어내 왔는데도 언제나 맑고 상쾌합니다. 후학양성과 대중교화에서 보여준 강단과 경책은 모두의 마음에 더없이 온화와 유순한 행장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백년 후학까지도 살피신 스님의 선견(先見)에 공경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우뚝 서셨으니 울창한 빛과 향으로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니다.